

# 새로 發見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과 松廣寺 寺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Newly Found 「Zhu jin gang bo re bo luo mi jing」 and the  
Name Transition of Songgwang Temple

盧基春(Ro, Ki-Chun)\*

## ◁ 목 차 ▷

- |                                    |                                                          |
|------------------------------------|----------------------------------------------------------|
| 1. 緒 論                             | 3.2 寺名의 用例                                               |
| 2.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發掘經緯<br>와 書誌의 特徵   | 4. 「注金剛般若波羅蜜經」에 收錄된<br>松廣社와 松廣寺의 關係 및 寺號의<br>改易 原因과 그 時期 |
| 2.1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發掘<br>經緯          | 4.1 「注金剛般若波羅蜜經」에 收錄<br>된 松廣社와 松廣寺의 關係                    |
| 2.2 새로 發見된 「注金剛般若波羅<br>蜜經」의 書誌의 特徵 | 4.2 寺號의 改易 原因과 그 시기                                      |
| 3. 松廣寺 寺名의 變遷과 用例                  | 5. 結 論                                                   |
| 3.1 松廣寺 寺名의 變遷                     | <참고문헌>                                                   |

## <초 록>

본 연구는 새로 발견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서지적 특징을 규명하고,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권말에 수록된 ‘松廣社’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曹溪山 松廣寺 寺名의 변천과 그 원인, 그 시기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새로 발견된 복장본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은 1215년 淸州牧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지금까지의 문헌 기록 가운데 ‘松廣社’의 명칭이 수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권말에 수록된 ‘松廣社’는 ‘松廣山+定慧社’ 또는 ‘松廣山+修禪社’의 약칭으로 松廣山에 있는 定慧社 또는 修禪社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松廣社’ 즉 ‘松廣山에 있는 定慧社 또는 修禪社’라는 寺名이 ‘松廣寺’ 즉 ‘송광산에 있는 사찰’이라는 일반화된 사명으로 개역된 원인은 恭愍王代에 불교계의 중심 세력이 교체되면서 寺名이 바뀐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1371년 ‘松廣寺’라는 명칭이 문헌에 나타나지만 辛旽이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한 1365년부터 구체화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要語：注金剛般若波羅蜜經, 松廣社, 修禪社, 松廣寺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 (kchliboh@chollian.net)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newfound *Zhu jin gang bo re bo luo mi jing*(注金剛般若波羅密經), as well as the transition of the name of the Songgwang Temple(松廣寺) through surveying the literatures printed in the temple.

*Zhu jin gang bo re bo luo mi jing* (注金剛般若波羅密經), which was found in the body of a Buddha statue, was printed in Chungjumok(淸州牧) in 1215. It has been confirmed as the oldest material available where the name Songgwangsa(松廣社) was recorded.

Songgwangsa(松廣社) is a compound of either 'Songgwang Mountain(松廣山) + Jeonghesa(定慧社) or Songgwang Mountain(松廣山) + Soosunsa(修禪社)'. It changed to Songgwang Temple(松廣寺), meaning a temple in the Songgwang Mountain. I suppose the name change occurred around King Kongmin times of the Korea Dynasty which would be in 1371, when the then mainstream Buddhism group, having long been backed by the Yuan(元) Dynasty, was replaced by a native one. Though the earliest material in which we see the name Songgwangsa(松廣社) was printed in 1371, the name change is presumed to have already happened in 1365 when Shindon(辛旽) took power.

Keyword : *Zhu jin gang bo re bo luo mi jing* (注金剛般若波羅密經), Songgwangsa(松廣社), Soosunsa(修禪社), Songgwang temple(松廣寺)

K C I

## 1. 緒 論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조계산 자락에 새둥지처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曹溪山 松廣寺의 山名과 寺號의 변천을 관련기록이나 구전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신라말 慧璘禪師의 開山 시대로부터 高麗 普照國師 이전까지는 대개 松廣山 吉祥寺라 하였고, 普照國師가 定慧結社의 安所를 이곳에 정한 후에는 松廣山 吉祥寺를 松廣山 定慧社라 개역하였으며, 高麗 熙宗 元年에는 칙령에 의하여 松廣山 定慧社를 曹溪山 修禪社로, 그리고 고려말 또는 조선초부터는 일반적으로 曹溪山 松廣寺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光州廣域市 芝山洞에 소재하고 있는 紫雲寺의 木造阿彌陀佛坐像의 복장에 납입하였던 복장물 중 13세기 초에 간행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권말의 간기에는 비록 表記法은 다르지만 同音語인 ‘松廣社’라는 명칭이 수록되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고려말 ~조선초부터 호칭하였다는 ‘松廣寺’라는 명칭이 13세기 초에 이미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새로 발견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서지적 특징과 둘째, 문헌에 수록된 송광사 사명의 변천과 용례를 살펴보고, 셋째,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권말에 수록된 ‘松廣社’와 현재 호칭되고 있는 ‘松廣寺’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넷째, ‘松廣社’가 언제, 어떤 연유로 ‘松廣寺’로 불리워졌는가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發掘經緯와 書誌的 特徵

### 2.1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發掘經緯

大韓佛教曹溪宗 第21教區 本寺 松廣寺의 末寺인 紫雲寺<sup>1)</sup>에는 제1대 주지

1) 紫雲寺는 光州廣域市 東區 芝山2洞 216 所在하는 근래 창건한 조그마한 사찰로 大韓

를 역임했던 慧雲스님에 의해 1929년 고창 선운사로부터 이운해 온 木造阿彌陀佛坐像 1구가 대웅전 안 중앙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높이 87cm, 상호 높이 27cm, 상호 너비 20cm, 어깨 너비 38cm, 무릎 너비 59cm, 무릎 높이 14cm, 백호 지름 1cm, 중간 계주 지름 8cm, 중간 계주 높이 2.5cm, 정상 계주 지름 4cm, 정상 계주 높이 2.5cm이다. 다만 무릎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 합친 것이다. 그리고 밑면 복장공은 반원형으로 거의 밑판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복장공의 지름은 46cm, 너비 32cm, 두께 4cm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불상의 표면이 탈색과 탈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5년 전인 1999년에 다시금 전면적인 개금불사를 실시하였고, 이 당시에 불상의 밑면에 있는 복장판을 개봉하고 불복에 들어 있는 「注金剛般若波羅蜜經」 1점과 「妙法蓮華經」 6책, 복장조성기 1점과 중수원문 3점을 비롯하여 여러 장의 충전용 다라니경 및 기타 복장물을 수습하였으나, 상단부 목 부위에 납입된 복장물은 복장공이 협소하여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개금불사가 끝난 후 중수기와 「妙法蓮華經」은 木造阿彌陀佛坐像에 납입하여 밀봉하고, 「注金剛般若波羅蜜經」과 복장조성기 및 기타 복장물은 별도로 보관하여 오다가, 2004년 3월 25일 송광사 정보박물관장 고경스님, 순천대학교 최인선교수, 그리고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木造阿彌陀佛坐像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에도 목 부분에 납입된 복장물의 수습을 시도하였지만 손상의 위험 때문에 수습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수습에 적합한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4월

佛敎曹溪宗 第21敎區 本寺 松廣寺의 末寺이다. 본래는 芝山2洞 76-1에 소재하였으나, 1994년에 普賢寺에 매각한 이후 2002년 현 위치에 가람을 新築하였다. 현 위치에 이주하기 전 紫雲寺에는 田岡永信(1898~1975), 古庵祥彦(1899~1988, 全國禪院 순회기간 1925~1939), 離山導光(1922~1984), 龍吟鍾煥 스님이 修道精進하였으며, 이후 比丘尼 慧雲(安末禮, 1911~) 스님이 1973년부터 이 곳에 머물러 宗團에 登錄한 創建主가 되었다. 住持는 慧雲(1973. 12. 19~1986. 6. 18.) 이후 현재는 敬俊(1986. 6. 18~現在) 승계하였다. 현재 자운사는 대웅전과 요사채가 마련되어 있는데 법당안에는 중앙에 아미타불 뒤에 後佛幀을 비롯하여 좌우에 七星幀과 獨聖幀이 배치되어 있고, 좌우측면에는 山神幀과 神衆幀 등이 걸려 있다.

30일에 재차 시도하여 비로소 불복에 남아 있던 복장물을 모두 수습하게 되었는데, 이때 별도로 수습된 복장품은 「小字本妙法蓮華經」 1첩이다. 따라서 木造阿彌陀佛坐像의 복장물은 木製喉靈桶, 「注金剛般若波羅蜜經」(1215년 1첩), 多羅尼經(1184년), 「小字本妙法蓮華經」(1첩), 「妙法蓮華經」(6책), 腹藏造成記(1388년), 重修願文(1611년)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서지적 특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2. 2 새로 發見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書誌的 特徵

인도에서 원시불전이 결집된 이후, 대승경전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金剛經은 대략 2세기 이전에 인도에서 결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도에서 성립된 금강경은 그 후 중국에 전래되어, 402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漢譯)으로부터 시작하여 703년에 의정(義淨)의 역출(譯出)에 이르기까지 300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6종의 번역본이 완성되었다.

- ① 鳩摩羅什(姚秦)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402~412年間 譯經)
- ② 菩提流支(魏)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09년 譯經)
- ③ 眞諦(陳)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62년 譯經)
- ④ 達摩笈多(隋) 譯, 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 一卷(AD 605~616년간 譯經)
- ⑤ 玄奘(唐) 譯,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一卷(AD 648년 譯經)
- ⑥ 義淨(唐) 譯, 佛說能斷金剛般若波羅蜜 一卷(AD 703년 譯經)

위와 같은 금강경의 6역본 중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역본은 鳩摩羅什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된 금강경이며, 우리나라의 高麗大藏經에는 達摩笈多의 역본을 제외한 5종의 역본의 入藏되어 있다. 고려대 장경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판본류를 살펴보

먼, 寺刹本으로는 1214년에 판각된 群生寺板과 1237·1245년에 판각된 목판이 해인사 잡판에 보존되어 있으며, 1305년 청주 元興社 간본이 고인쇄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소형본으로 鳳林寺 腹藏本 2종(1228, 1311年刻)이 화성 용주사에 수장되어 있으며, 官版本으로는 1357년에 판각된 전주본과 1363년에 남원에서 판화가 수록된 판본을 개판하였다. 그리고 주해본으로 1387년에 川老解本이 개성의 金沙寺에서 간행된 바 있다.

紫雲寺의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은 금강경의 주요한 곳에 대해서 夾註 형식으로 편찬한 일종의 교장적 성격을 지닌 문헌인데, 일반적으로 금강경의 註解本으로는 진나라 스님 僧肇가 5세기 초반에 찬술한 <金剛經注>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註疏本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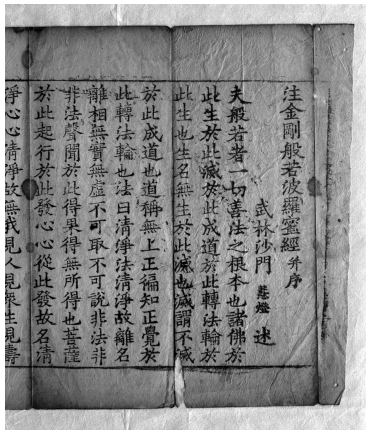
이 복장본 주금강경은 비록 앞표지가 없고 권말 일부에 蟲蝕과 충전시 문은 송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缺落된 부분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권수에는 武林沙門 慧燈이 지은 <注金剛經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금강경의 핵심 내용과 주해의 필요성만 언급되어 있을 뿐, 주해자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혜등의 서문에서는 이 책을 주해한 인물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문의 말미에는 ‘姚秦天竺沙門鳩摩羅什譯’이란 역자표시만이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두서명 다음 행에 기재되는 것이 바른 형식일 것이다. 다음 행에 ‘金剛般若波羅蜜經’이란 經題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아래로 경제에 대한 細注가 여러 행에 걸쳐 기술되고 있다. ‘如是’이하의 경문의 주요한 곳에 小字雙行으로 기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금강경의 여러 한역본 중에 이 책은 구마라집 역본을 저본으로 협주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주요한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정의 형태는 摺裝本이며, 따라서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권자본이나 접장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상하간의 板高는 17.7cm이며, 접은 한 면의 폭은 8.7cm 정도이다. 한 장의 크기는 대략 23.4×62cm인데, 모두 14장이 분리된 상태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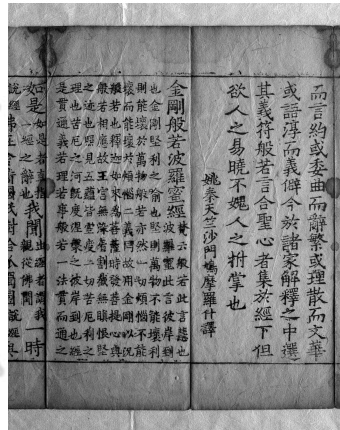
되었다. 그리고 매 5행씩 7절로 접어 한 장은 모두 35행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 행은 16자씩 배자되어 있다. 판수에는 ‘金이란 축약서명과 ‘O’이란 장수표시가 보이고 있고, 그 아래로 木板을 새긴 刻手의 이름으로 판단되는 ‘存耆’와 ‘仁赫’이 새겨져 있는데 粘連 상태에서는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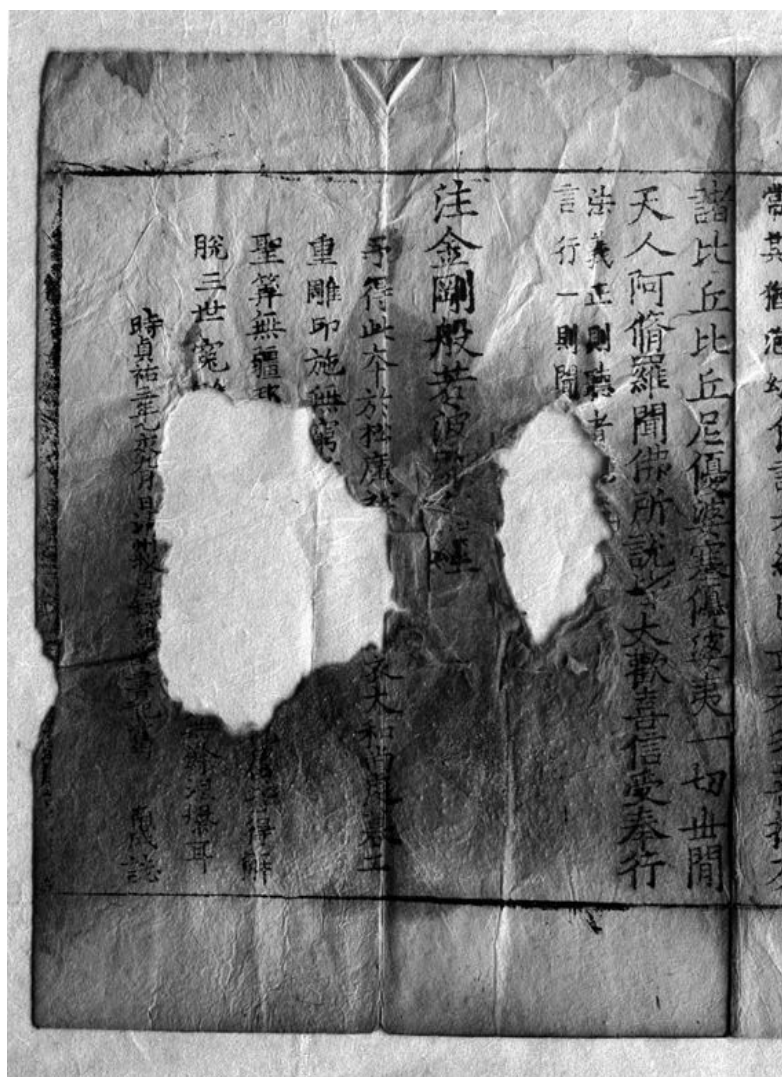
<그림 1> 「注金剛般若波羅蜜經」



<그림 2> 「注金剛般若波羅蜜經」  
并序



<그림 3> 「注金剛般若波羅蜜經」  
卷頭



<그림 4> 「注金剛般若波羅蜜經」卷末 刊記部分



권말에는 부분적으로 □와 같이 일부 逸失된 내용이 있으나, 이 책의 간행 사실을 밝혀 줄 수 있는 짙막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予得此本於松廣社□□□衣大和尚處募工  
重雕印施無窮□□□□□  
聖筭無彊邦□□□□□□屬皆得解  
脫三世離□□□□□□無餘涅槃耳  
時貞祐三年乙亥九月日清州牧司錄兼掌書記葛 南成誌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淸州牧에서 司錄兼掌書記의 일을 맡은 葛南成이란 사람이 松廣社의 □□□衣大和尚이 가지고 있던 책을 얻어 고려 고종 2(1215)년에 重雕하여 간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에 ‘重雕’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선행의 판본을 바탕으로 복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衣大和尚’이란 인물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는 曹溪山 修禪社를 개창한 普照國師 知訥의 법석을 전해 받아 1210년부터 1232년까지 修禪社의 제2세를 역임한 眞覺國師로 추정된다. 진각국사는 고려 명종 8(1178)년에 修禪社 인근의 화순 한천에서 출생하였으며, 신종 4(1201)년에 亡母의 薦度を 위해 송광사에서 法齋를 올리는 인연으로 당시 보조국사를 만나 출가하였다. 그의 불가 이름은 慧謹이요, 자호는 無衣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실된 부분은 慧謹無衣大和尚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紫雲寺에서 발견된 복장본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은 청주목의 관원인 갈남성이 慧謹無衣大和尚(眞覺國師)이 소장하고 있던 판본을 얻어 와서 이를 登梓本으로 하여 1215년 청주목에서 복각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본 판본에 구체적으로 수록된 ‘松廣社’와 현재 통용되고 있는 ‘松廣寺’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松廣寺 寺名의 변천과 용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松廣寺 寺名の 變遷과 用例

#### 3.1 松廣寺 寺名の 變遷

신라말 慧璘禪師에 의해 창건된 송광사는 창건 당시 山名을 ‘松廣’, 寺號를 ‘吉祥’이라 하였다. 寺宇의 범위는 겨우 100여 칸에 지나지 못하고 大衆의 수효는 30명 내지 40명이 넘지 않은 규모의 절로 開山 당시 본사의 寺額이 華嚴 第 2會의 說主인 文殊師利‘文殊는 妙, ‘師利는 吉祥의 譯言임을 고려해 볼 때, 화엄종의 속찰이며, 해린대사 또한 화엄종의 宗徒로 추정된다. 그후 고려 仁宗(1112~1146) 때에 이르러 釋照大師가 절을 크게 확장하려는 원을 세우고 준비하던 중 타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석조대사 역시 華嚴宗裔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sup>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신라말 해린선사에 의해 창건된 이후 고려 인종 석조대사 시기까지 본사는 華嚴宗刹로 松廣山 吉祥寺로 호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려 인종 석조대사 시기까지 송광산 길상사로 불리웠던 山名과 寺號가 언제 다른 이름으로 개역되었는가? 이것은 송광사에서 배출한 16國師 가운데 제1세인 普照國師 知訥의 定慧結社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明宗 12년(1182) 정월 知訥이 上都(開城) 普濟寺의 談禪 法會에 참여하여 당시의 승려들이 속세의 일에 빠져 道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개탄하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호소하면서 승려 10여 명과 함께 ‘他日에 능히 이 약속을 이루어 임하에 숨어 同社를 맺으면 마땅히 定慧로써 이름을 하자!’는 結社의 의견을 발표하였고, 명종 18(1188)년 八公山 居祖寺 觀慶北 永川郡에서 定慧社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거조사는 그 範圍가 너무 좁아 衆員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國師께서 門弟 守愚로 하여금 結社 安禪의 適所를 구하게 하였는 바, 이곳이 바로 석조대사 이후 거의 폐사 상태로 남

2) 林錫珍 著, 古鏡 改編, 「曹溪山 松廣寺誌」(순천: 松廣寺, 2001), 13-14.

아있는 송광산 길상사이다.

명종 27(1197)년부터 天眞·廓照 兩師 와 함께 토목을 일으켜 대찰을 경영하였고, 國師는 翌年인 神宗 元(1198)년 봄에 팔공산 거조사에 있는 정혜사의 사액을 건위 본산으로 가는 도중 지리산 上無住庵에서 잠시 머물다가 同 3(1200)년 본산에 광림하였다. 얼마 후(未久) 국사는 寺號를 ‘吉祥’에서 ‘定慧’로 하였고, 회종 원(1204)년에 준공을 이룬 후, 동년 10월 1일 성대한 낙성식을 봉행하였다. 한편, 회종은 그 즉위에 미처 국사의 위업을 전해 들으시고 山名을 ‘松廣’에서 ‘曹溪’로, 寺號를 ‘定慧’에서 ‘修禪’이라 고쳐 賜額 하였는데, 특히 국사의 素志인 ‘定慧’를 고쳐 ‘修禪’으로써 額을 賜하신 것은 本郡의 북쪽 40여리에 있는 鷄足山中에 이미 瑜伽宗 慧炤國師의 창건에 係한 ‘定慧社’<sup>3)</sup>가 있는 것을 回避하려 하신 것이다.<sup>4)</sup>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普照國師가 본산에 도착한 神宗 3(1200)년부터는 ‘松廣山 吉祥寺’에서 ‘松廣山 定慧社’로 寺名을 개역한 것으로 보이며, 熙宗이 즉위한 1204년부터는 칙령에 의하여 ‘松廣山 定慧社’에서 ‘曹溪山 修禪社’로 山名과 寺名을 모두 개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04년부터는 ‘曹溪山 修禪社’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松廣寺’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가?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문헌의 기록 내용을 중심으로 ‘修禪社’라는 명칭이 언제까지 사용되었으며, 언제부터 ‘松廣寺’라는 寺號가 사용되었는가를 시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순천시 서면 청소리 계족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찰은 지금으로부터 약 1천3백년 전 신라시대에 혜조국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이 지방에서는 고사로 이름나 있다. 승평지에 따르면 옛시대에는 대 사찰로 이름 나 있었는데, 고려 때의 승 충지가 참선했던 사찰이라 한다. 여순사건과 6.25사변을 겪는 동안 공비들 때문에 국보급 등의 귀중품을 많이 잃었다. 사찰 부근에는 많은 고로쇠물이 나올 뿐 아니라 가을 단풍이 유명하다. (<http://www.sunbo.or.kr/sightsee/jeong.htm>)

4) 林錫珍 著, 古鏡 改編, 『曹溪山 松廣寺誌』 15-20.

### 3. 2 寺名의 用例

1204년 曹溪山 修禪社로 개역된 사호가 언제까지 사용되었으며, 언제부터 ‘松廣寺’라는 寺號가 사용되었는가를 『松廣寺誌』의 人物篇(16 國師 및 住持) 및 관련 문헌들에 수록된 寺號의 용례를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때(1204)에 普照國師께서 曹溪山에 새로 修禪社를 개창하고(人物篇: 眞覺國師)
- \* 高宗이 즉위(1213)하여 ... 미기에 公(崔洪胤)은 相位에 오르고 師(眞覺國師)는 曹溪에 住하셨다.(人物篇: 眞覺國師)
- \* 다음 해(1220) 眞覺國師가 斷俗寺에 있었다. 그러나 本社로서 常住의 본거를 삼으셨다.(人物篇: 眞覺國師)
- \* 15세(1229)에 曹溪 제2세 眞覺國師 堂下에 나아가셨는데(人物篇: 眞覺國師)
- \* 癸巳(1233) 겨울 本社에서 示疾하시매 晉陽公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人物篇: 眞覺國師)
- \* 때(1236)에 眞覺國師가 曹溪에서 盛化하시므로 빨리 나아가 參知하시니(人物篇: 眞覺國師)
- \* 寄松廣社主夢如手書(人物篇: 眞覺國師)
- \* 壬子(1252) 8월 眞覺國師가 臨滅하심에 ... 上이 이에 曹溪 제4세 되기를 명하시고(人物篇: 眞覺國師)
- \* 丙辰(1256) 秋에 眞覺國師가 退隱하기를 구하고 師(眞覺國師)를 추거하여 대신케하니 上이 師(眞覺國師)에 명하여 曹溪를 잇게 하고 ... 9월 19일 曹溪에 도착하여 ... (人物篇: 眞覺國師)
- \* 松廣으로 돌아와 자퇴하였다.(人物篇: 眞覺國師)
- \* 松廣社를 나와 竹林坊(현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 죽림사)에 거주하였다.(人物篇: 眞覺國師)<sup>5)</sup>

5)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寺誌叢書: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 \* 오직 이 修禪精舍는 普照聖師가 창건한 이래로 ...<sup>6)</sup>
- \* 열 살 때(1279)에 曹溪 圓悟國師에게 나아가 체발 수구하시니(人物篇: 覺儼國師)
- \* 至元18년(1281) 윤8월 일 수선사 주 내노 소지지의 ... (人物篇 圓悟國師)
- \* 至元二十三年丙戌(1286) ... 유골을 수습하여 3월 6일 曹溪로 모셔왔다. ... 향수 72요, 법랍 57이니 曹溪에 주석하심이 30년에 이르렀다. ... 嗣法 曹溪山 修禪社 傳法沙門 臣 冲止는 교를 받들어 석재를 준비하고 門人 萬淵寺 主 大禪師臣 宏默은 교를 받들어 碑文과 篆額을 쓰다.(人物篇: 圓悟國師)
- \* 忠宣王五年癸丑(1313)十二月庚午...召松廣社僧萬恒赴會(人物篇: 慧鑑國師)
- \* 曹溪山 修禪社 第六世 圓鑑國師碑銘. ... 탑액을 寶明 이라 賜 하셨으므로 曹溪社 북쪽 골짜기에 건립하였다 ... 大元 延祐 元年 甲寅(1314) 8월일 문인 대선사 정안·대선사 진숙·신열 등이 입석하였다.(人物篇 附錄: 圓鑑國師碑銘原本)
- \* 曹溪山 修禪社 第十世 ... [人物篇: 慧鑑國師(1249-1319)]
- \* 曹溪山 修禪社 第十三世...時維至正十九年己亥(1359) 暮春下澣...李益齋奉命謹書(人物篇: 覺儼國師)
- \* 辛亥(1371) 8월 26일 松廣寺는 동방 제일도량이라하시고 ... 9월 27일 松廣에 이르렀다.(人物篇 普濟尊者)
- \* 癸丑(1373)...8월 松廣에 돌아오시니(人物篇: 普濟尊者)
- \* 乙卯(1375) 가을에 松廣社에 옮겨 주석하셨다.(人物篇: 普覺國師)<sup>7)</sup>
- \* 洪武 十八年(禡王 11년 1385) 乙丑 九月 十一日 門人前松廣寺住持 大禪師釋宏立石<sup>8)</sup>
- \* 洪武 28년 乙亥(1395) ... 익일 曹溪山 松廣寺에 들어와(人物篇: 高峯和尚)

407, 411, 427, 431, 445, 446, 463, 465.

6) 「圓鑑國師集」(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231.

7)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寺誌叢書: 曹溪山松廣寺史庫」, 448-452, 454, 472, 468, 476, 480, 499.

8) 「太古普愚國師法語集」(서울: 韓國佛教太古宗, 1974), 305.

- \* 丙午(1426) 여름 松廣寺에 돌아왔다.(人物篇: 高峯和尚)
- \* 曹溪山修禪社重創祖高峯和尚行狀…皇命宣德六(1431)年辛亥春正月日誌  
(人物篇: 高峯和尚)<sup>9)</sup>

이상의 용례를 살펴보면, 山名과 寺名을 칙명에 의하여 ‘松廣寺 定慧社’에서 ‘曹溪山 修禪社’로 모두 개역한 1204년 이후부터 李齊賢(1287~1367)이 修禪社 第13世 覺嚴國師의 碑文을 쓴 恭愍王 8(己亥, 1359)년까지 공식명칭은 ‘曹溪山 修禪社’, 略名은 ‘曹溪’ 또는 ‘修禪社’로 표기하였고, 명칭을 반복 사용할 경우에는 ‘本社’라고 표기하였으며, 圓鑑國師가 元의 世祖에게 올린 <上大元皇帝表>에서는 ‘修禪社’라는 명칭 대신에 ‘修禪精舍’<sup>10)</sup>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大禪師 六眉가 世宗 13(辛亥, 1431)년에 쓴 ‘曹溪山修禪社重創祖高峯和尚行狀’에서 ‘曹溪山 修禪社’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行狀의 내용 가운데 “洪武二十八年乙亥(1395)…翌日乃入曹溪山松廣寺” “丙午(1426)夏還松廣寺”라고 하여 ‘曹溪山 松廣寺’ ‘松廣寺’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曹溪山 修禪社’라는 명칭은 일회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통용되고 있는 ‘松廣寺’라는 명칭은 普濟尊者(懶翁和尚, 1320~1376)를 王師로 임명한 恭愍王 20(辛亥, 1371)년부터 용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松廣寺’ 또는 ‘松廣’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상의 용례를 고려해 볼 때, ‘曹溪山 修禪社’라는 명칭은 1204년부터 1370년까지 사용되었으며, 1371년부터 ‘松廣寺’라는 명칭이

9)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寺誌叢書: 曹溪山松廣寺史庫』, 527, 529, 526, 533.

10) 불도 수행자의 주거지. 산스크리트 비하라(vihara)를 번역한 말로 僧院 또는 寺院이라고도 한다. 인도 중부 마가다왕국의 竹林精舍가 그 시초로 가란타장자(迦蘭陀長者)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죽림원을 헌상하자 그곳에 빽비사라왕이 지었다. 인도 사위성(舍衛城)의 장자인 수달(須達)이 헌상한 祇園精舍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부터 精舍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크게 번성하였으나 사찰에 精舍의 名號가 붙은 예는 드물고, 선비집 사랑채의 堂號를 칭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朱子學이 보급되면서 精舍는 祠廟와 결합하여 강론과 제사를 지내는 서원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하였다. (<http://100.empas.com/pentry.html?i=1787490>)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위의 용례 가운데 ‘松廣社’와 ‘松廣寺’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새로 발견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을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 4. 『注金剛般若波羅蜜經』에 收錄된 松廣社와 松廣寺의 關係 및 寺號의 改易 原因과 그 時期

##### 4.1 『注金剛般若波羅蜜經』에 收錄된 松廣社와 松廣寺의 關係

2장에서 ‘松廣社’라는 명칭은 청주목에서 1215년에 간행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2장의 寺號의 용례들 중 ‘松廣社’라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1241년 이전 李奎報가 淸眞國師에게 보낸 편지인 ‘寄松廣社主夢如手書’, 崔滋가 1260년 이전에 찬술한 ‘曹溪宗 三重神定爲禪師官誥’에 수록된 “出松廣社居竹林坊, 그리고 高麗史에 수록된 慧鑑國師(1249~1319)의 事歷 가운데 “忠宣王五年癸丑(1313)十二月庚午…召松廣社僧萬恒赴會”, 權近이 찬술한 普覺國師의 비문 가운데 “乙卯(1375)秋移住松廣社” 등이 있다

또한 山名과 寺名을 동시에 의미하는 松廣’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용례를 보면, 崔滋가 1260년 이전에 찬술한 ‘曹溪宗 三重神化爲禪師官誥’의 “還從松廣而自資”, 李穡이 찬술한 普濟尊者의 행장에 수록된 “癸丑(1373)…八月還松廣” 등이 있다. 이상의 용례를 볼 때 1215년에 간행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을 필두로 1373년까지 ‘松廣’과 ‘松廣社’의 명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松廣社’와 ‘松廣寺’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社’의 개념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寺刹名에 ‘社’의 명칭이 붙게 된 것은 12세기 후반 武臣亂을 기점으로 기존의 문벌체제와 결탁된 불교계에 대한 자각·반성운동의 성격을 띤 信仰結社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武臣亂을 기점으로 불교계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曹溪宗과 天台宗에 의해 각각 定慧結社와 白蓮結社가 주도되었고, 이 결과 최씨 정부의 지원아래 수많은 사찰이 개창되었거나, 사명의 개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먼저 曹溪宗 普照國師 知訥의 定慧結社와 관련이 있는 사찰은 曹溪山 修禪社, 江華 禪源社, 金海 甘露社 등이 있고, 天台宗 了世(1163 ~1245)의 白蓮結社와 관련이 있는 사찰은 全羅道 康津 萬德山 白蓮社 등으로 이들 사찰들은 최씨 집정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수많은 國師, 王師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대몽항전기를 거치고 무신정권이 붕괴되면서 元 지배기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전자는 修禪社의 계승을 표방한 迦智山門이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은 一然(1206~1289)이다. 일연이 주석하였던 사찰 가운데 ‘社’의 명칭이 붙은 사찰들을 보면, 南海 定林社, 慶尙道 지역의 湄魚社, 仁興社, 佛日社 등으로 일연이 國尊으로 추대된 1277년부터 불교계의 중심세력으로 존속하였다. 한편 후자는 白蓮社의 성격을 변질시키면서 그 계승을 표방한 妙蓮社 등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원의 지배가 시작된 충렬왕 이후부터는 迦智山門과 妙蓮社 계통의 출신들이 國師, 王師로 추대되었다.<sup>11)</sup>

이상과 같이 寺號에 ‘社’의 이름이 붙은 수많은 사찰이 개창되거나 사호가 개역된 것은 12세기의 신앙결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당시 집권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松廣社’와 ‘松廣寺’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해 ‘松廣’은 本山の 舊號로 修禪社 당시의 金石文에도 舊號인 ‘松廣’으로써 修禪社에 대응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松廣社’라는 관용된 명사가 점차로 뒤 사람들의 뇌 속에 젖어서 마침내 ‘修禪社’를 고쳐 ‘松廣寺’로 공칭하게 된 것이며, 그 개칭 년대는 麗代에 있어서는 ‘社’자의 用이 많았었고, 朝鮮代에 있어서는 ‘寺’자의 用이 많았었기 때문에 본사의 額을 고친 것은 麗末 鮮初의 무렵으로 추정하였다.<sup>12)</sup> 본 연구자 역시 ‘松廣社’는 曹溪山

11) 佛教史學會編, 『高麗中後期佛教史論』(서울: 民族社, 1992), 245-261.

12) 林錫珍 著, 古鏡 改編, 『曹溪山 松廣寺誌』, 19-20.



의 舊號인 ‘松廣山’에 1200년 普照國師 知訥이 개창한 ‘定慧社’ 또는 1204년 칙명에 의해 개역된 ‘修禪社’의 사명이 합쳐진, 즉, ‘松廣山+定慧社’ 또는 ‘松廣山+修禪社’의 약칭으로 ‘송광산에 있는 정혜사’ 또는 ‘송광산에 있는 수선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修禪社의 명칭을 대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4.2 寺號의 改易 原因과 그 시기

그러면 왜 ‘松廣山에 있는 定慧社 또는 修禪社’가 松廣山에 있는 사찰을 의미하는 ‘松廣寺’로 개역되었을까. 단지 ‘松廣社’라는 관용된 명사가 점차로 뒤 사람들의 뇌 속에 젖어서 임금의 칙명에 의해 사액된 ‘修禪社’가 마침내 ‘松廣寺’로 寺號가 개역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는 고려 후기 불교 주도세력의 역학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무신 집권기에 정혜결사와 백련결사를 주도한 불교세력의 중심지인 修禪社, 禪源社, 甘露社, 白蓮社, 그리고 원의 지배기에 불교계의 중심세력으로 부각한 迦智山門 출신의 一然이 주석하였던 定林社, 吾魚社, 仁興社, 佛日社 등은 당시 집권세력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개창되었거나 사호가 개역된 사찰들이며, 이들 산문 출신들이 대부분 국사와 왕사에 추대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사찰들은 ‘○○窟’와 같은 사찰들에 비해 더 많은 특혜를 누린 사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의 간섭이 끝나가던 恭愍王(1351~1374)대에 이르러 華嚴宗系의 辛旽(?~1371)과 曹溪宗系이면서 조계산 수선사가 속한 閻崛山門과는 다른 迦智山門 출신의 太古普愚(1301~1382)가 불교계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는바, 신돈은 1365년부터 1371년까지 불교계는 물론 국정을 장악하였고,<sup>13)</sup> 태고는 恭愍王 5년(1356)부터 왕사로서 불교계의 정화, 부원세력의 제거, 한양천도 등 불교계는 물론 일반 통치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

13) 황인규, “어말선초 화엄종승의 동향,” 『불교학연구』 창간호(2000. 12), 205.

진하였던 공민왕은 1365년부터 화엄종의 신돈, 천회를 우대하고, 조계종의 태고를 탄압하였으나, 공민왕 20년(1371) 7월 신돈의 몰락과 함께 태고가 국사로 책봉되면서<sup>14)</sup><sup>15)</sup> 迦智山門은 고려 말기의 불교계의 주도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 지배기가 끝나가고 공민왕대로 접어드는 1350년대부터 화엄종계의 신돈과 가지산문 출신의 태고가 불교계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면서, 무신집권기와 원지배기의 특혜를 누렸던 ‘○○社’와 같은 사찰들을 ‘○○寺’와 같은 일반 사찰로 개편되지 않았을까? 따라서 松廣社<sup>16)</sup> 즉 松廣山에 있는 修禪社<sup>17)</sup>라는 특혜받은 사찰이 ‘松廣寺’ 즉 ‘송광산에 있는 사찰’이라는 일반화된 사명으로 개역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앞장의 寺名의 용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普濟尊者 懶翁和尚이 王師에 봉해지고 송광사에 주석한 1371년에 ‘松廣寺’라는 명칭이 문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신돈이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한 1365년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5. 결 론

이 연구는 光州廣域市 芝山洞에 소재하고 있는 紫雲寺의 木造阿彌陀佛坐像 복장에서 새로 발견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 문헌에 수록된 松廣寺 寺名의 變遷과 用例 및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의 권말 간기에 수록된 ‘松廣社’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曹溪山 松廣寺 寺名의 변천과 그 원인 및 시기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발견된 복장본 「注金剛般若波羅蜜經」은 淸州牧 司錄兼掌書記인 葛南成이 修禪社 제2세인 慧謙無衣大和尚(眞覺國師)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얻어 와서 이를 登梓本으로 하여 1215년 淸州牧에서 복각 간행한 판본이며, 지금까지의 발견된 문헌 기록 가운데 ‘松廣社’의 명칭이 수록된 가장 오래된

14) 許興植, 「韓國佛教中世史研究」(서울: 一潮閣, 1994), 366.

15) 「太古普愚和尚法語集」, 288-289.

문헌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문헌에 수록된 松廣寺 사명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曹溪山 修禪社’라는 寺號는 熙宗이 1204년 賜額한 이후 1370년까지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松廣寺’라는 명칭은 1371년부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松廣社’는 曹溪山의 舊號인 ‘松廣山’에 1200년 普照國師 知訥이 개창한 ‘定慧社’ 또는 1204년 칙명에 의해 개역된 ‘修禪社’의 사명인 합쳐진 즉, ‘松廣山+定慧社’ 또는 ‘松廣山+修禪社’의 약칭으로 ‘송광산에 있는 정혜사’ 또는 ‘송광산에 있는 수선사’의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修禪社의 명칭을 대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寺號에 ‘社’의 이름이 붙는 사찰은 무신집권기의 定慧結社와 白蓮結社 등 信仰結社와 원의 지배기에 집권세력들의 지원에 힘입어 개창되었거나 사호가 개역된 사찰들이며, ‘寺’의 명칭이 붙는 사찰들에 비해 당시 집권세력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사찰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따라서 ‘松廣社’ 즉 ‘松廣山에 있는 修禪社’라는 특혜받은 사찰이 ‘松廣寺’ 즉 ‘송광산에 있는 사찰’이라는 일반화된 사명으로 개역된 것은 원의 지배가 끝나가고 恭愍王代로 접어들면서 불교계의 중심 세력이 교체되면서 寺名이 바뀐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普濟尊者 懶翁和尚이 王師에 봉해지고 송광사에 주석한 1371년에 ‘松廣寺’라는 명칭이 문헌에 나타나지만 辛旽이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한 1365년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 배상현, “松廣寺의 高麗文書에 대한 檢討.” 『順天 曹溪山 松廣寺 所藏 佛教文獻의 研究』(2004. 4). 107-128. 未出版論文
- 佛教史學會編,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民族社, 1992.
- 『圓鑑國師集』,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 林錫珍 著, 古鏡 改編, 『曹溪山 松廣寺誌』, 순천: 松廣寺, 2001.
- 『注金剛般若波羅蜜經』紫雲寺 所藏本
- 中村淳, 森平雅彦, “松廣寺 元代 티베트文 法旨의 性格과 그 意義.” 『順天 曹溪山 松廣寺 所藏 佛教文獻의 研究』(2004. 4). 59-90. - 未出版論文.
- 『太古普愚國師法語集』, 서울: 韓國佛教太古宗, 1974.
-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寺誌叢書 :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 許興植, 『韓國佛教中世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4.
- 황인규, “여말선초 화엄종승의 동향.” 『불교학연구』 창간호(2000.12), 201-226.

K C I